

6. 나는 그저 따라 다니는 배우자이다 I am Just a Trailing Spouse

그 해는 탐(Tom)이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았다. 탐은 아내가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이 담임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는 학교 잔디를 깎고, 교실 바닥을 청소하고, 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세탁을 하고, 시장에서 신선한 고기를 사는 일들에 대해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났을 뿐인데 탐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큰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고,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를 학수고대했다. 반면에 메리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꼈고, 자기가 하던 일들을 사랑했다. 그녀는 적어도 일년은 더 있기를 원했고, 가능하다면 영구히 정착하기를 바랬다.

처음에는 이런 차이점이 그들의 가정에 긴장감을 조성했고, 그들은 그것들에 대해 의논하는 것도 회피하였다. 하지만 긴장감은 점점 커져갔고, 차이점에 대해 점점 더 많이 말하게 됨에 따라 그들의 대화는 진정한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논쟁으로 치달게 되었다.

탐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따라 다니는 배우자’였다. 따라 다니는 배우자란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을 구한 지역으로 함께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따라 다니는 배우자가 된다는 것은 세계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족하고 있는 일과 사역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후원망이나 현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이 외국에서 그런 직장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좌절하기 쉽고, 시간 소모가 많은 일일 것이다.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무엇이 그것을 문젯거리로 만들었으며,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성경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때부터 있던 일이다. 하나님은 아브람(후에 아브라함)에게 고국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다. 그가 그리하면 그의 자손들은 위대한 나라가 되리라고 하셨다. 아브람은 그의 아내 사래(후에 사라)와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가나안으로, 이집트로,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이동하였다 (창12-13장).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이루어졌고, 다시 재개되었을 때도 그 둘 사이에서 다시 이루어졌다 (창15장). 아브람과 사래는 상대에게 할 책략을 꾸미었고, 그 책략은 사래를 언약의 한 부분으로 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아브람은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해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사래에게 자신의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할 것을 부탁했다. 그녀는 그렇게 했고, 아브람은 바로가 사래를 그의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살게 했을 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창12장).
- 분명히 사래는 자신의 역할을 따라 다니는 배우자로 보았고, 그 역할의 중요한 부분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자 사래는 자기가 아브람의 자식을 낳아야 하는 사람인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다. 사래는 그녀의 애굽인 하녀를 아브람의 자식을 낳아줄 여자로 아브람에게 주었다 (창16장). 결국 하나

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한 것이지 그녀와 한 것은 아니었다. 아마도 그녀의 역할은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또 다른 십 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언약을 재확인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래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고, 그녀를 언약에 포함시켜 주셨고, 말씀하시기를 “그녀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셨다 (창17:16).

하나님이 사래가 당신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해준 후에도 이 문제는 그들의 결혼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람과 언약을 맺은 후에 이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연대순으로 열거해 보았다.

- **언약 후 10년이 지났을 때**
사래는 아브람에게 자기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브람 때문이라고 말했다 (창16:5).
- **언약 후 25년이 지났을 때**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몸종(하갈)을 내쫓으라고 하였다 (창21:9-10).

이것은 25년 된 문제이다. 두 번 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몸종을 사막으로 내쫓았다.

이런 문제가 근대 선교에서도 일어났는가?

이것은 근대 선교 초창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이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아내였던 도로시 캐리는 ‘따라 다니는 배우자’였다. 그녀가 윌리엄과 결혼했을 당시 그는 젊은 제화공이었고, 결혼 후 2년 뒤에 그 사업을 물려받았다. 두 사람은 그들이 살던 마을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았고, 심지어 윌리엄은 그 지역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10년 동안 윌리엄은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점점 더 관심 갖기 시작했다. 그는 인도 선교지로 자원했고 도로시와 그의 자녀들도 데리고 가기로 작정하였다. 비록 도로시는 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큰 압력으로 인해 마지 못해 동의했다.

도로시는 윌리엄이 다른 이들을 위해 선교하는 것에 절대 참여하지 않았다. 처음 몇 년간은 자녀들을 돌보았으나, 몇 년 후에 그녀는 정신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자녀마저 돌볼 수 없게 되었다.

그에 반해서 윌리엄의 두 번째 아내였던 샬롯은 따라가는 배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인도에 왔고, 뱅골어를 배워서 현지인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윌리엄의 선교사역에 동참했다. 그녀의 특별한 관심은 힌두교 소녀들을 위한 교육이었다.

물론 대부분의 따라 다니는 배우자들이 정신 질환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중 많은 이들이 매우 불행하고, 적어도 가족이 사역지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기본적인 문제는 탐의 경우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던 직업을 가졌던 배우자들이 갑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매우 '사소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의미 있는 일거리의 부족, 문화적 충격, 외로움이 배우자들로 하여금 비참해지게 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부부간의 문제와 사역지를 계획보다 먼저 떠나는 문제도 초래하게 된다. 따라 다니는 배우자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을 경험한다.

- 좌절과 분노 Frustration & resentment
- 정체성과 자존심의 상실 Loss of identity & self-esteem
- 자신감의 상실 Loss of self-confidence
- 공허함과 상실감 Feeling empty & lost
- 수면 문제와 불행함 Sleep problems & unhappiness
- 불안감과 우울함 Anxiety & Depression
- 신체적인 질병 Physical illness

이 목록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약 80%의 배우자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약 65%가 본업을 두고 떠났다. 그렇다면 배정된 해외 선교 사역에 40%가 배우자나 가족들의 현지 적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도중하차했다는 것은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대다수의 따라 다니는 배우자들이 여성들이지만, 남성들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성들은 종종 자신들이 하는 일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므로 어쩌면 그들에게 더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선교단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의 직원들과 인력 감소 문제에 대해 염려하는 선교단체들은 도움이 되는 다음의 몇 가지 단계를 취할 수 있다.

- 선발 과정에 배우자들을 참여시킨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을 이주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처음부터 이주하는 과정에 대한 결정에 배우자들을 참여시킨다. 그들이 이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을 더 느낄수록 그들이 그저 '따라 다닌다'는 느낌을 덜 가질 것이다.
- 모든 절차 내내 이주에 관한 의사 소통이 배우자와 계속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그 이주하는 과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 배우자들이 메시지를 받지 못할 경우, 그들은 갑자기 불행해질 수도 있다.
- 남편과 아내 모두 사역지에 익숙할 수 있도록 사전답사 여행을 보낸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있을 거주지나 아이들 학교 문제 등을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한다.
- 배우자가 염려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약간 융통성 있는 정책을 허용해야 한다. 그 배우자의 마음가짐이 그 어떤 정책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배우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지 물어본다. 예를 들어, 구독할 잡지나 집에서 연결이 가능한 디지털 가입자 회선(DSL) 인터넷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만일 배우자가 파트 타임이나 풀 타임으로 일하는데 관심이 있으면 가능한 한 선교 단체 내에서 일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아니면 현지에 있는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그곳의 정보 자료를 사용한다.
- 어떤 식으로든 배우자로 하여금 이주하는 것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한다.

따라 다니는 배우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음 사항들은 배우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다.

- 만족은 선택하는 것이고, 그들도 선택할 수 있음을 자각하라. 그들이 만족하기로 선택할 경우, 그 선택은 그들 전체의 경험을 착색할 것이다. 초기 선교사였던 바울은 그 어떤 모든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빌4:11-13). 새로운 정착지에 대해서 책이나 인터넷, 혹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 배워라. 물론 나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것들을 전할 수 있으므로 잘 가감해서 들어야 할 것이다.
- 이런 경험을 자신과 자신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이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 이메일, 스카이프(skype),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전에 하던 일들을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본국’에 돌아가서나 다른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할 수 있는 새로운 계통의 일을 개발하도록 하라.
- 배우자들끼리는 선교지로 이주하거나 정착하면서 서로가 자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외국 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절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 기회에 서로 즐겁고 의미있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져라.
- 새로운 문화 상황 속에서 다른 시각을 갖기 위한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라.
- 이웃 간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역을 찾아 보아라.

마지막으로, 오히려 따라 다니는 배우자이기 보다는 ‘주도하는 배우자’가 되라. 엘리자노 루즈벨트(Eleanor Roosevelt)는 따라가는 배우자로 하나의 배경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녀 자신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로 선택했다. 심지어 엘리자노는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가로, 연설자로, 정치가로, 운동가로 계속해서 활동했다. 오늘날에도 그녀는 단지 ‘영부인’ 이었다기보다는 그녀가 이뤄낸 것들로 기억되고 있다.

이러한 단계들을 밟음으로써 따라 다니는 배우자에서 주도하는 배우자가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